

# 집앞 쓸기부터 기업투자까지… 협약 봇물

무안·완도·진도군 마케팅 전략 잇단 체결

단체장 치적 쌓기·사후 관리 미비 지적도

전남 각 시·군이 지역 내 시민단체는 물론 기업, 행정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들이 협약을 맺은 이유도 지역 청결, 이벤트 성공 개최, 도농 교류, 기업 투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지자체들이 협약을 지역 마케팅 전략으로 삼아 성과를 내려는 시도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치적 쌓기, 협약 이후 사후 관리 미비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무안군은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복원을 통해 범군민

운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일 15개 유관기관과 '행복 클린 범군민운동'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행복 클린 범군민운동이란 '깨끗한 무안=행복무안'이란 슬로건 아래 관내 유관기관단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내 집앞 내가 쓸기 ▲아름다운 거리조성 ▲기초질서 지키기 등 3대 실천과제를 설정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공동협약 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추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기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범군민 밭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결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연말 포상 격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완도군은 광주시교육청과 해조류박람회에 광주지역 학생 참여와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지역 학생은 내년 4월 11일부터 한 달간 완도에서 열리는 해조류박람회를 참관하고, 군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게 된다.

에스 모건은 진도 고군 농공단지 4959㎡ 부지에 30억원을 투자, 부산교 및 인공 어초를 제작하고, 기성수산은 임회면 상만리 일원 2721m에 30억원을 들여 보배섬에서 생산된 김 가공식품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 교류에 나섰다.

고금 청학마을은 지난 2007년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뒤 전통 지주식 김과 친환경 유자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으로 유명하며 사계절 내내 체험객들이 많아지 않는 체험마을이다.

진도군도 3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에이스모건 등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에이스 모건은 진도 고군 농공단지 4959㎡ 부지에 30억원을 투자, 부산교 및 인공 어초를 제작하고, 기성수산은 임회면 상만리 일원 2721m에 30억원을 들여 보배섬에서 생산된 김 가공식품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무안=김민준기자 jun@

완도 해조류박람회 성공 기원…한일고속 후원금 기탁



(주)한일고속(대표 최석정)은 최근 완도군에 해조류박람회 성공기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주)한일고속 측은 또 2014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게 블루나래호를 이용할 경우, 개인 10%, 단체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한일카페리호 승선 시 개인 20%, 단체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협약했다. (주)한일고속은 완도~제주 간을 1시간40분대로 운항하는 페리선 블루나래호 운영중이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역시! 신안 천일염…서울 소금박람회 대성황

4일간 일정 마쳐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 소금박람회'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사진> '천일염의 세계화! 건강소금 섭취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번 소금박람회에는 46개 기업·기관 100개 부스가 참여했으며, 학술 심포지엄, 천일염 사용 협약식, 시범학교 기념식, 국산 천일염 골라내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갯벌 천일염의 식품활성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천일염이 발효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돼 식품 연구가, 바이어 등의 관심을 끌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소금박람회를 통해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천일염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는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환경 관리 강화로 '먹는 천일염'에서 '경쟁력 있는 천일염'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정보중고 평생교육원 성인문해교육학습자 사회전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늦깎이 성인문해학습자들이 '성인문해교육학습자 사회전'을 개최한다.

'문해, 시와 그림으로 행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시화전은 목포제일정보중고 부설평생교육원에서 문해 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성과를 격려하고,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화전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남도립도서관 남도화랑에서 전시된다. 작품은 성인문해 프로그램 수강자 300여 명의 작품 중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28점과 미술작품 20여 점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양을산 산림욕장 개장 20억 들여 2.2km 등산로 개설



3일 개장한 양을산 산림욕장. 목포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다.

3만1450주를 식재했다.

성신고등학교 입구에서 레포츠공원까지 총 연장 390m, 폭 8~2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 24면도 조성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즐길 수 있도록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조성을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장한 양을산 산림욕장은 산책과 명상, 힐링을 통해 일상의 지친 삶에 활력을 충전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전북

# 부안군 농공단지 약취 잡는다

## 업체·폐수처리장 등 5곳 하수슬러지 시설 개선 박차

부안 주민들을 괴롭혔던 약취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약취발생시설로 지적됐던 제2농공단지 내 (주)참프레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4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약취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주)참프레, 폐수종말처리장, (주)산들FC, 그리고 부안읍권 외곽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 5곳, 이 가운데 1차적으로 (주)참프레의 경우 약취제거를 위해 26억원 가량을

투자해 시설개선 등을 실시해 약취를 잡아내는데 집중했다.

이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한 약취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최고의 약취관련 전문가 집단인 한국환경공단 약취관리팀의 약취 배출시설 관련 기술지원을 받아 약취발생 시설물에 대한 2차 개선에 2억원 가량을 투입, 이달 말까지 추진한다.

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약취를 제거하기 위해 군비 3억 원을 투입해 약취 저감시설인 3단계 대형 스크러버 설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이에 따라 약취저감 시설이 완료돼 정상 가동되는 다음 달 중순에는 약취배출시설이 총체적으로 개선돼 그

동안 군민들을 괴롭혔던 약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정정 부안을 위해 약취 개선이 완료되는 10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취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전자센서를 갖춘 약취관리시스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는 약취문제로 고통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추석명절의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의 부재를 틀타 축산폐수의 불법 투기와 산업폐수의 무단 방류 등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22일까지만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장재웅기자 jjy0681@

## 단신

### 정읍 기적의도서관 '도서관 속 물리강연'

정읍기적의도서관이 9월 달 가을을 맞아 물리학자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갖는다.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도서관 속 물리강연'은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국대 이강영 교수를 초청해 '선생님, 원자력이 뭐예요?'라는 주제로 열린다.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각 소관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도 예산이 확정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보

다 1000만원 증가한 10억8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시가 권장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 관내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보건의료원 순환버스 운행노선 확대

순창군이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옥천마을 방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보건의료원 순환버스 운행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순창을 서쪽에 위치한 옥천마을은 경유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보건의료원은 옥천마을 방면 주민들이 순환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창여중 앞과 옥천읍모정, 군청 후문(중국관)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 순환버스 운행회수는 감소 없이 운행노선이 추가 확대하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오전에는 30분 간격, 오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총 11회를 운행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지난 2일 공용, 3일 해리면 '작은목욕탕' 개장 지난 2일 공용, 3일 해리면 작은목욕탕이 문을 열었다. 작은목욕탕은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 시책사업 중 하나로 면단위 주민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을 투입해 5개면에 작은목욕탕을 조성하고 있다.

/고창=을창영기자 cy0370@

### 정읍시 여성문화관 새로 일하기센터

### 상반기 139명 직업훈련 49명 취업

정읍시 여성문화관 새로 일하기센터(이하 일하기 센터)가 맞춤형 직업 훈련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3일 일하기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139명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및 산야초 발효와 목재 녹슬지도 방과 후 교사 등 6개 과정의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 교육이수자 중 49명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했다. 교육이수자의 97%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일하기센터는 앞으로도 교육이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나서 원스톱 매칭 등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 여성문화관 일하기센터는 출산, 육아, 가사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여성들에게 직업 상담에서부터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순창 온천수 후코이단 가미 새 음료 생산

2년 연속 '한국의 좋은 물'로 선정된 순창 온천수에 나노버를 기술과 후코이단이 가미된 새로운 음료가 생산될 예정이다.

군은 3일 군수실에서 (주)해림후코이단, (주)엔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창의 물에 나노버를 기술과 후코이단(미역귀)에서 추출한 항암물질을 접목해 시범 생산키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 협조 ▲기업체간 시설 및 장비 등의 상호 활용 ▲시장성 확보에 따라 순창군에 시설 투자 등이다. 이에 따라 순창의 물이 앞으로 식·음료 개발에도 적용돼 산업화·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